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17 Number 3 ● 3 2009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기독교인 과학자의 타협

다윈 탄생 200주년에 즈음하여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반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에스겔 2장 4-7절의 말씀은 마치 현재 진화론 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계에 있는 학자들 특히 과학자들에게 사실을 말하라는 명령처럼 들려 온다. 진화론을 발표하여 세상을 혼미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다윈의 출생 200년(2009년 2월 12일)과 진화론을 집대성한 ‘종의 기원’ 출판(1859년 11월 24일) 150년을 맞아 세상이 떠들썩하다.

한국 교계에서도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신앙 문제에 심각한 빌미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 진화론과 수십억 년 지구나이를 바탕으로 한 다중격변론을 주장하는 양승훈 교수의 예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올바른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중격변론을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진화 순서대로 창조하시

고 멸종시키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셨는데, 그 멸종이 일어날 때마다 지구상에 노아홍수와 같은 격변이 있었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그 격변의 원인은 지구 밖에서 날라온 운석이며 최후의 격변이 노아홍수라는 성경과 진화론적 순서와의 타협이론이다. 다중격변론은 전공자에게서 나



은 것이 아니며 과학과 성경 모두에서 심각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양승훈 교수의 블로그에 있는 최근 칼럼(번호 1380) “두 근본주의의 충돌”에서 양교수는 창조과학자를 일컬어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어 지구는 약 6 천년 되었으며, 1년간의 노아홍수가 모든 지층을 만들었다고 믿을 뿐 아니라, 전문적 깊이가 없어 때로는 증명된 과학적 사실들도 부정하는 편협한 사람들로 표현 하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다시 서술돼야 한다. 창조과학자란 젊은 지구와 노아홍수를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인 과학자들(Bible Believing Christian Scientists)’이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지구와 노아홍수를 믿는 것이다.

창조과학자들은 지구의 자전, 태양계, 은하계, 열역학법칙들, 기체의 행동 법칙들, 전기-자기의 법칙들, 유전 법칙들, 만유인력의 법칙, 상대성 이론 등을 받아드린다. 뿐만 아니라 이런 물리학, 생물학 등 여기에 열거하지 않은 수많은 과학 법칙들의 거의 전부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었던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뉴턴, 보일, 켈빈, 패러데이, 멘델, 파스퇴르, 맥스웰 같은, 양교수가 소위 창조과학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다시 말해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었던 사람들(Bible Believing Christians)’에 의해서 발견된 것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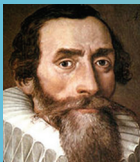
양승훈 교수가 창조과학자들을 자연과학의 법칙들도 무시하는 비전문가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현재 살아있는 창조과학자들 중에도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들과 공동 연구 과제들을 수행했던 듀안 기쉬 박사나, 판구조론 컴퓨터 모델링으로 Science나 Nature에 최고의 논문을 실었던 지질학자인 Baumgardner 박사 같은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창조과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창조과학자들 중에 전문가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외에도 멘델처럼 당시에 훌륭한 연구 업적을 냈지만 세상이 아직 알아주지 못해 묻혀 있는 진주와 같은 창조과학자들이 많이 있다. 양교수는 이들을 그렇게 세상 기준으로 폄하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천동설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당시에도 가장 유능하고 가장 명석한 사람들 모두 다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구가 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해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지나간 역사는 하나님도 바꿀 리 없다.

창조과학자들이 세상 과학자들과 아주 다른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다. 창조과학자들은 자연과학의 범위를 벗어난 과거의 역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 성경의 역사와 다른 설명은 틀렸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대표적인 부분이 창세기 1장 ~11장의 역사로서 특별히 세상 과학자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6일간의 창조와 전 지구적인 파괴를 야기한 노아홍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않은 6일간의 우주 창조는 믿음의 결정판이고 노아홍수는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전지구적인 증거들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코페르니쿠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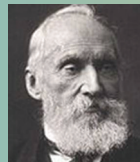
케플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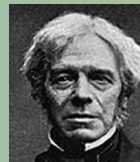
뉴턴



보일



켈빈



패러데이

노아홍수의 바른 이해가 없으면 캄브리아기의 화석 대폭발, 넓은 고생대 지층에 비해 아주 협소한 중생대와 신생대 지층 규모, 지층과 지층 사이의 시간 간격 없음, 지층의 역전 현상, 화석 순서의 뒤바뀜, 빙하기나 공룡에 대한 설명, 인종, 언어, 현재 지형 등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증거들을 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그런 증거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된다. 또한 성경을 벗어나서는 이들 증거들에 대한 해석에 더 많은 불확실한 가정들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성경은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성경의 주장을 사실로 믿고 보면, 어느 모로 보아도 타당한 설명을 주고 있다.

성경의 역사적 기록들은 사실이든지, 거짓이든지 둘 중 하나이지 명석한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될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창조과학자들은 처음부터 항상 세웠던 그 분의 증언을 믿는 것이고 그 증언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증거적임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 창조과학자들은 성경의 기록을 믿고 그 사실이 기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물리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 졌는지, 그렇다면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는지 그 증거가 남아 있는지, 하나님의 디자인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등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사실이며 피조물에 보이는 창조자의 능력과 속성을 보여주어 성경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 그 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그 분 앞에 무릎 꿇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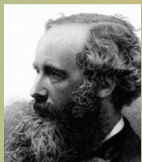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는 과학자들의 믿음을 살펴 보자. 최근 한국의 교계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양승훈 교수나 시카고 코스타(KOSTA, Wheaton College)에서 과학에 대한 강의를 했던 우중학 박사 그리고 해외에서는 점진적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 있는 천문학 박사인 휴 로스 등이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과학자들의 대표적 예이다.

(1) 이들은 성경이 암시조차도 하고 있지 않는 45억년의 오랜 지구/ 150억 년의 오랜 우주(빅뱅)를 믿는다. 많은 유명한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진화가 사실일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고생대-중생대-신생대로 이어지는 약 6억년의 지구 생물 역사를 믿는다. 역시 세상의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그들은, 다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의 확신할 수 없고 결점이 많은 결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언인 창세기 1장을 사실대로 받아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이상하게도 다른 분야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가진 믿음이 일관성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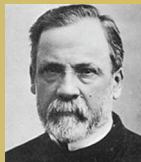
(3) 이들은 진화는 사실이 아니라고(양승훈 교수: 진화론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 고생대-중생대-신생대를 사실로 믿으면서 진화론을 거부하는 것은 이율 배반적인 믿음이다.) 믿기도 하고, 상관 없다(우중학 박사/ 휴 로스)고 믿기도 한다. 세상 대부분의 생물학자와 고생물학자들이 진화가 사실이라고 주장 함에도 불구하고.....



맥스웰



멘델



파스퇴르



파브르



기쉬



밤가드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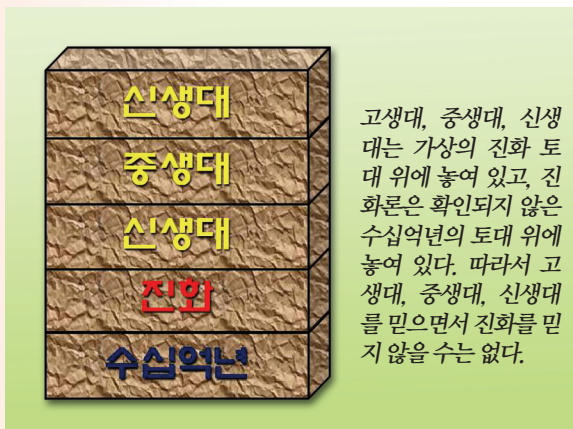
(4) 이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세상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5) 이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고 믿는다. 세속 생물학자들이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만에 다시 살아 나셨다고 믿는다. 이 세상의 과학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날 수 없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7) 이들은 천국과 지옥도 믿는다. 이 세상 대부분의 전문가와 유명 인사들이 천국과 지옥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런 믿음의 행태를 분석해 보면 이 과학자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이들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도, 천국의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도, 부활도, 각종 기적들도 자신의 필요에 의해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 이런 사상을 지식인들은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이라 부른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과학 즉 자연 과학이 아닌 과학을 거부함으로써 세상에서 받게 될 비난을 피하며 과학자로서의 세상 영광도 취하고 신앙인으로서도 대우 받기 위해 그런 것들을 사실로 믿는다고 말하거나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그

들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 과학자들은 성경이 과학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매년 바로잡아야 하는 과학책과는 달리 바로 잡을 필요가 전혀 없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 기록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면에서도 전혀 하자가 있을 수 없다.

이들의 생각에 독자의 마음이 동조되었다면 잠잠히 자기 자신을 돌아 보아야 한다. 더욱이 단순히 안 믿어진다는 것과 성경말씀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석해 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혹은 거짓말 하셨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150억년, 46억년, 혹은 6억년이라고 표현할 방법을 몰라 6일이라고 얼버무렸다고 혹은 거짓말 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물론 창조과학자들도 성경의 모든 부분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는 역사도 있고, 시도 있고, 사실 기술도 있고, 비유도 있어 문맥을 이해하고 읽어야 할 경우도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과연 과거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그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밖에 어

면 다른 해석이 있을까? 창세기 1장을 자기 지식에 맞추어 해석해서 읽는다면 나머지 49 장과 다른 65 권의 성경은 어떻게 읽게 될 것인가?

더 큰 문제는 이들 개인의 믿음은 자신들에게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서 파급된 영향력 즉 성경에 대한 불신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서양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고 성경 사상을 기반으로 건국되었던 오늘의 미국 세태가 확실하게 그 불신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성경에서 벗어난 사상은 개인 구원을 어렵게 하고 언제나 문화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엄청난 죄의 물꼬를 그들이 터 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이 과학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가 아닌 다른 역사를 주장하려면 얼마든지 세상 학계에 나가서 자기가 연구한 과학 이론을 발표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일이지는 하지만 세상 지식을 통해 실망에 실망을 거듭한 끝에 돌고 돌아 사실을 발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결국에 ‘사실’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이미 말해 놓은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

또 십 수년 전에 쓴 책이나 최근에 쓴 양교수의 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소감은 그가 확실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는 (종게 말해서) 항상 중립적인 위치에서 있다. 이것도 일리가 있고 저것도 일리가 있다고 말한다. 진화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경적 창조도 아니다, 하나님 편도 아니고 세상편도 아니다. 그에게는 확실한 것이 없고 늘 애매 모호하다. 그의 글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가 하나님도 판단하고 세상도 판단한다. 이것은 첫 사람 아담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자 했던 우리의 원죄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경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누구에게서 배웠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딤후 3:14).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 아버지 두 선생이 있다고 말씀 하셨다(요 8:38). 그러므로 확실한 것도 아닌 세상의 것을 교회에 들고 들어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의 권위를 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양교수를 비롯한 이와 비슷한 자세를 취하는 과학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무서운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증명되지도 않고,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암암리에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게 하는 행위를 중단 해야 한다. 무서운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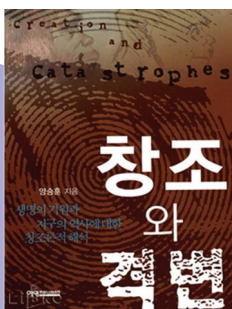
사실이란 무엇인가? 사실이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없고, 좋아하든지 싫어하든 상관없이 없고,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무서운 것이다. 창조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더해지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 다른 사람들을 실족케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지는 편이 낫고, 죄인은 하나님 계신 곳에 설 수 없기 때문이다(마 18:6).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잠 30:6).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향한 독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결과는 무섭다. 그 무서운 사실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은혜의 사실 속에 들어가는 행복과 기쁨의 감격누리기를 바란다.

최우성 / 서부지부장, 생리학 박사

“보시기에 좋았다”와 “멸종”을 같이 사용할 수 있을까?

다중격변론의 문제

최근 지질학자들이 동일과정설에서 격변설로 그 패러다임이 넘어가자 또 다른 타협이론이 등장했다. 바로 ‘다중격변론’이라는 이론이다. 그 한 예로 양승훈 교수는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그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의 저서인 “창조와 격변” 1을 통해 소개하는 이론이다. 다중격변론을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진화의 순서대로 생물을 창조하신 후 멸종시키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셨는데, 그 멸종이 일어날 때마다 지구상에는 노아홍수와 같은 격변이 있었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그 격변의 원인은 지구 밖에서 날라온 운석이며 최후의 격변이 노아홍수라고 주장한다(p.233).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점진적 창조론에다 격변설을 추가한 이론이다.



그의 저서에서는 무엇보다 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의 옹호를 위해서 많은 페이지를 할애했다. 왜냐하면 저자가 “지구 절대연대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은 이 논쟁의 출발점이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p470)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연대측정에 대한 내용은 전공자가 보기에는 너무나 허접이 많다. 특히 계산 방법 중에 하나인 등시선 방법(isochron method)은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과장되었다. 등시선이 직선을 보이면 그 암석의 초기값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암석이 오염되거나 여러 암석을 섞어서 측정을 해도 이와 관계없이 직선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책 전체를 통해 부정확하고 변하기 쉬운, 그리고 오랜 지구나이 패러다임에서 선택적으로 얻어진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을 성경기록보다 위에 놓은 언급이 여러 번 등장한다. 그리고 단 한번의 전지구상의 대격변은 수십억 년의 연대측정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구역사에서 단 한 차례의 대규모 홍수만 있었다는 대홍수론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기존의 연대측정 결과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p470) 그러나 측정할 때마다 변하는 연대측정을 고정시켜놓고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노아홍수를 변형시키려는 것은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랜 지구의 패러다임에 의해 선택된 수십억 년의 연대측정이 노아홍수와 불일치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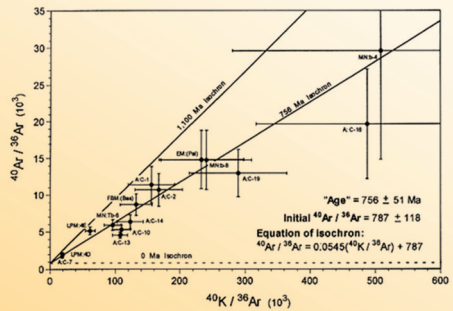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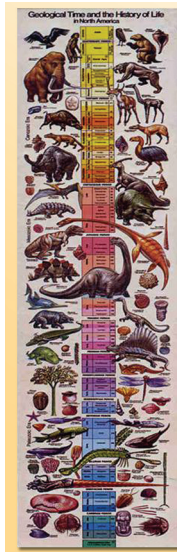
다중격변론에서 가장 신뢰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그 것은 바로 지질주상도다. 진화론의 지질시대를 그대로 인정한다(p. 233)고 주장하며 화석을 매물의 순서가 아닌 창조의 순서(p.

235)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책 안에서도 서로 모순된 주장이 된 것이다. 화석은 운석에 의한 격변에 의해서 형성되며 진화는 믿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오히려 진화론과 동일과정설의 패러다임에서 탄생한 지질주상도는 고집하고 있다. 이는 수십억 년의 지구나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화의 믿음에서 나온 지질주상도라는 가상의 산물이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질주상도가 지구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는 노아홍수의 규모를 일반적인 격변으로 격하시키기도 한다.

“그랜드캐년과 인근 캐년들의 형성... 만일 노아홍수로만 현재의 지층형성을 설명하려면 홍수가 있었던 10여 개월 동안 쉬지 않고 시간당 평균 2-3m의 속도로 지층이 퇴적되었다고 가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p. 485)

양 교수는 시간당 2-3m의 속도로 지층이 형성되는 것이 상상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노아홍수와 비교할 때 천문학적인 비율로 작은 세인트 헬렌산의 그리 크지 않은 화산폭발(1980년) 과정에서 흘러내린 저탁류가 수시간만에 5m의 지층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모르는 듯하다. 자신의 상상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의심을 갖는 자세라 아니할 수 없다.



존재하지 않는 지질주상도와 정확도와 관계가 없는 등시선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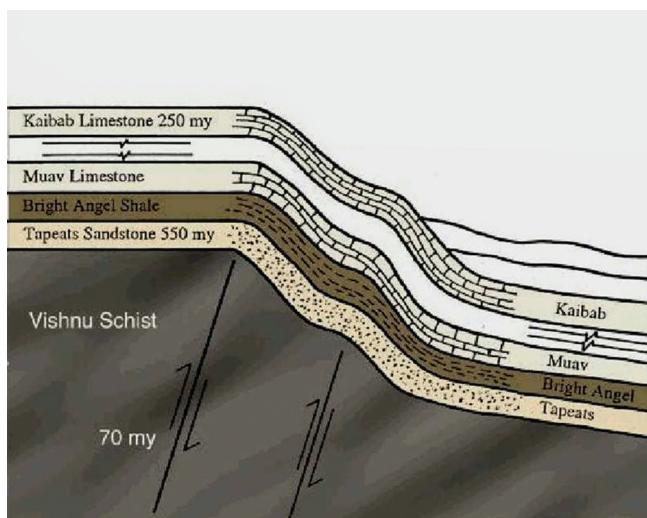
사실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옳다. 오히려 수백 미터의 지층과 그 속에 있는 화석을 보면서 그 대격변의 규모가 어떠했을까를 상상해보는 것이 바른 자세다.

운석까지 도입해서 여러 번의 격변에 대한 논리를 펴는 것은 더욱 억지스럽다. 야외에서 퇴적암의 지층간의 시간적 간격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는 1년 이내의 노아홍수 기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운석 충돌로 그런 연속적인 대규모의 지층이 만들어 질 수도 없지만 만약 양 교수가 언급했듯이 수백만 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운석충돌에 의해 지층이 만들어졌다면 그 격변과 격변 사이에 만들어져야 하는 산이나 강을 보여주는 흔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지층들이 동일하게 휘어진 습곡 형성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진화론자들이 지층을 해석하는데 실수해왔던 동일한 문제였으며, 다중격변론은 이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층 사이의 오랜 시간적 간격은 증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십억 년의 지구 나이에서 온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중격변론은 기본적으로 점진적 창조론(하나님께서 진화의 순서대로 창조했다는 타협이론이며 Hugh Ross에 의해 착안됨)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 창조론의 성경적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실제로 그의 책 안에서 점진적 창조론을 주장한 휴 로스를 지지하는 부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점진적 창조론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지도 않은 멸종과 창조를 반복적으로 행하셨다고 한다. 거기에 운석까지 사용하신 것으로 말한 것이다. 양 교수는 “대규모의 멸종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빴을까를 생각해보아야 한다(p. 536).” 라고 말하기 까지 한다. 그럼 하나님 자신이 창조했던 생물들을 ‘보시기에 좋았다’ 고 해 놓고 다시 멸종시키는 과정이 보시기에 좋았던 말인가? 하나님이 그런 실수의 하나님이실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멸종을 염두에 두고 창조하셨을까?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전능하고 완전하심을 파손시키면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무리한 자세라 아니할 수 없다.

또, “사람을 죽이는 것은 빌딩이지 지진이 아니다(p. 535)”라는 역시 표현을 써가면서도 지진과 같은 재해의 근본 원인이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것은 운석에 의한 지진으로 멸종이 일어난



그랜드캐년의 지층들이 만든 습곡. 오랜 지구의 패러다임인 진화론이나 다중격변론으로는 가장 밑에 있는 5억5천만년 전의 지층에서부터 2억5천만년 되었다는 지층들이 부스러지지 않고 동시에 휘어진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것이 인간이 창조되고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있을 수 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인명피해는 일차적으로 지진 때문이다.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빌딩이 무너지지도 않고 사람이 죽지도 않는다. 그리고 빌딩 없는 곳에서도 지진에 의한 쓰나미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난다. 사람이 빌딩 때문에 죽는다는 식의 말은 논리가 사라진 말 장난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노아홍수 이전에 운석에 의해 수많은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다시 멸종시키셨다면 성경에는 어째서 단 한마디의 기록도 남겨두지 않으셨을까? 오히려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만 되풀이 하셨을까? 다중격변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많은 것을 더하고 있다. 이 너무나 부정확하고, 진화의 패러다임으로 선택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결과, 즉 수십억 년의 지구나이와 타협하기 위해서이다. 사실 양 교수의 다중격변론은 지질학 전공자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지질학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책이 얼마나 야마추어 수준의 책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진화론이 등장한 이래로 기독교 안에서는 타협이론이 늘 존재해왔다. 다중격변론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결국 사라질 것이다. 문제는 이런 타협이론이 창조주이신 예수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주고 떠난다는 것이다. 유신론적 진화론, 날-시대이론, 점진적 창조론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화석에서 진화에 필요한 중간단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기독교인은 유

신론적 진화론을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런데 곧 바로 진화 순서로 창조되었다는 점진적 창조론이 만들어졌다. 지층이 동일과정설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중격변론이 등장했다. 그렇다. 우리의 마음이 다 그렇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롬 3:4)란 말이 맞다.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롬 3:10, 11). 다중격변론은 이런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중격변론의 출현을 보며 세상을 봐야 한다. 세상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봐야 한다. 사단은 기독교인에게도 접근한다. 아마 기독교인에게 더 적극적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미 그의 수하에 있기 때문이다. 그의 첫 유혹도 하나님을 알고 있던 하와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참으로(really)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창 3:1) 사단이 하나님을 알고 있던 하와를 유혹할 때 첫 번째 던진 말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했냐?” 지금도 사단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던지는 말 같지 않은가? “하나님이 정말로 옛새 동안 창조하셨다고 말했냐?” “하나님이 정말로 단 한 번의 전지구적인 심판으로 모든 동물과 사람을 쓸어버리셨다고 말했냐?”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고 말했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해도 없어질 일도 아니다. 타협한다고 바뀌지도 않는다. 엄밀히 말해서 ‘사실’이란 단어 앞에는 형용사나 부사의 수식어도 필요 없다. 수식어는 붙이면 오히려 사실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실은 믿음 때문에 옳고 믿지 않기 때문에 틀리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이란 것은 믿음과 별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계시의 책은 우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흠도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티도 없다”(시 18:30).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다.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 감격스럽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창조하신 ‘사실’이 먼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 이전에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이 먼저 있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다행하고 감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사실인 책’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이다. 도저히 혼자서는 알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성경이 사실이 아니어서 우리 마음대로 타협할 수 있는 책이라면 무슨 감격이 있겠는가?

다중격변론이나 점진적 창조론의 등장을 보면서 수십억 년의 지구나이를 성경에 꿰 맞추려는 노력이 과거의 사실을 과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얼마나 왜곡시키는지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옛새 동안 창조하시고, 단 한번의 전지구적인 격변적 심판인 노아홍수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다.

이제만 / 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 양승훈 교수의 다중격변론에 대한 한국창조과학회의 입장은 홈페이지 www.kacr.co.kr에 들어가서 키워드 ‘창조와 격변’을 치면 볼 수 있다.



창조과학해안답사 | 세미나 | 강의

월드미션대학 특강

지난 1월 5-16일 2주간 “창조와 과학” 특강이 있었습니다. 매일 4시간씩 열흘간 이루어지는 강행군을 통해 과학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을 상세하게 다루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월드미션대학은 오는 2월 28일에 창조과학 박물관과 토리파인 해안 답사도 할 예정입니다.

모집 : 창조과학 박물관 및 샌디에고 해안 답사

오는 3월 28일 샌디에고에 위치한 창조과학 박물관 및 해안을 답사합니다.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가 텍사스의 달라스로 이전을 하였지만 창조과학박물관은 기존의 샌디에고에 그대로 있습니다. 창조과학 박물관은 짧은 시간에 창조 때부터 오늘날까지의 역사를 성경적 세계관 하에서 배울 수 있도록 디자인된 훌륭한 도구입니다. 3월 28일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주위 분들께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날짜뿐 아니라 다른 날에도 교회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참가비는 1인당 \$60입니다.

최우성 박사 신학교 강의

지난 1월 29일부터 장로교신학대학교의 2009년 봄학기 필수 과목인 ‘창조와 진화론’ 강의가 시작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저희 창조과학선교회의 강사가 강의하는 3번째 학기가 됩니다
창조과학박물관 노아 방주 실내 그림



다. 베데스다대학교에서도 역시 필수 과목으로 ‘생명과학’ 강의가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신학교의 학생들이 신학, 과학, 사회 등 모든 것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창조의 토대가 성경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강사인 최우성 박사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프로그램 확산

새교인 프로그램인 ‘창조주 하나님’을 이용하는 교회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지얼바인 온누리교회, LA 온누리교회, 주님의 영광교회가 프로그램을 사용했었는데, 올해부터 생수의 강 선교교회와 West LA 온누리교회가 추가됐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진화론의 문제점뿐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실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이해하도록 편성된 45분간의 세미나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 된 교회의 중요성까지도 강조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인들에게 신앙의 초석을 다지게 하는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월 말 CGNTV에서 ‘창조주 하나님’ 세미나 촬영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DVD로 제작되면 더 많은 교회가 사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교회 세미나

지난 1월 31일 West Covina Christian Church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창조과학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 3차 일본인 탐사여행에 이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원에 관한 근본적 질문을 통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탐사여행뿐 아니라 창조과학 세미나도 일본인 선교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어 동시통역사이신 김우실 집사님의 귀하신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통역뿐 아니라 일본어 자막까지 꼼꼼하게 준비해주셨습니다.

이재만 부회장 한국 방문

이재만 부회장은 오는 3월 3-23일 3주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대학캠퍼스를 순회하며 세미나를 전합니다(일정 참조). 세미나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짧은 일정 중에 30회 이상의 세미나를 하는 강행군입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일본인교회 세미나 장면



다윈의 첫번째 실수

1834년 4월26일 학사 자격도 없는 25살의 젊은이가 남부 아르헨티나에 있는 큰 강의 북쪽 가파른 언덕을 올랐다. 그는 폭 6마일의 산타크루즈 강 계곡과 그 계곡의 현무암 절벽을 보았다. 그는 그날 일기에 그 강 계곡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지금 이 강은 운반능력이 아주 작아서 미미한 양조차 움직일 수 없지만 태고의 시간은 헤아릴 수 없는 점진적인 침식을 통해 강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 젊은이의 이름은 찰스 다윈. 그의 지질학적인 관찰과 그 계곡에 대한 동일과정설적인 해석은 후에 세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다윈의 캠프에 다시 가다

올 해 다윈 출생 200년을 기념하고 있다. 나는 다윈이 무엇을 보았는지, 왜 그가 그 강 계곡을 주저없이 동일과정설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다윈이 캠프를 차렸던 곳에 갔을 때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그 계곡에는 빠르게 대단한 침식을 일으켰을 엄청난데 큰 홍수의 증거들이 널려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산타크루즈 강변에서 다윈이 캠프를 차린 곳을 찾기 위해 그의 기록을 살펴 보았다. 그의 일기와 학술 논문은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아주 정확히 보여줬다. 다윈의 캠프장소는 그 강 북편 고도 90 m, 제일 넓은 강 폭(계곡)보다 2마일 좁은 현무암 절벽 아래였다.

최근의 절벽 침식은 없었다

다윈은 당시 그 강이 모래와 자갈만을 움직이고 있었음을 정확히 관찰했다. 강물이 현무암 절벽을 오랜 동안 침식시켜 왔다면 절벽과 강물이 직접 만나는 곳이 있어야 하지만 그는 강이 절벽을 직접 만나는 곳을 볼 수 없었다. 계곡 어디를 가든지 범람원(홍수에 의해 이동된 퇴적물이 모인 곳)에 덩구는 자갈과 바위들이 현재 강둑과 매우 견고한 절벽 사이에 놓여 있다(사진 1).

지금의 약한 강의 힘으로는 그 바위들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므로 현재의 강은 그 절벽을 깎아 낼 수 없다. 강 폭을 꼭 메우며 흐르는 큰 홍수만이 그 현무암을 깎고 큰 자갈들과 바위들을 15m 아래 강 바닥으로 쓸어갈 수 있다. 다윈은 지금의 약한 강의 활동력과 예전에 침식하던 상황을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한 것이다.

현무암 지층은 없었다

다윈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있는 양쪽 현무암 지층들을 근거로 처음에는 90 m보다 좁은 틈이 었다가 오랜 침식에 걸쳐 산타크루즈 강이 2마일이나 되는 넓은 계곡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나는 강 상류인 북편 절벽에 있는 현무암 층 하나를 볼 수 있었는데 다윈이 생각한 것처럼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절벽이었다.

그러나 강 하부인 남쪽에는 현무암 지층이 발견되지 않는다. 계곡 남쪽 능선은 대부분은 운반되어 온 커다란 현무암 바위와 자갈들이 쌓인 거대한 퇴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사진 2). 다윈은 이 바위들로 가득 찬, 강 남쪽 능선의 퇴적지대를 용암이 흐르다 냉각된 화산성 지층으로 오해했던 것이다.

엄청난 홍수 증거

그 바위들로 가득 찬 능선은 높이가 65 m나 되었는데 계곡의 남쪽 편에 폭 3마일, 계곡을 따라 5마일이나 뻗어 있었다. 상류에서 운반되어 이 능선을 메우고 있는 마모된 수박 크기의 바위들은 65 m 높이의 능선 위에 다시 퇴적되었다. 그 퇴적된 바위의 크기와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따라서 이때 흘렀던 물은 깊이가 65 m보다 훨씬 더 깊었어야 되고 강 폭 6마일을 가득 메워야 했다! 그러므로 산타크루즈 강 계곡은 엄청난 홍수의 물이 빠져나가는 물길이었음에 틀림 없다.

커다란 바위들은 강 북편 현무암 절벽 위에도 놓여 있다. 다윈은 그 중 한 바위가 지름이 5 m나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흐르는 물은, 다윈에 의하면, 그렇게 큰 암석을 움직일 수 없었다. 물은, 다윈에 의하면, 현재 강보다 100 m 나 높은 절벽 위에 바위를 쓸어다 놓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다윈은 그 큰 바위는 바다가 그 현무암 절벽을 덮을 때 해빙되고 있던 빙산에서 떨어진 것으로 생각했다. 다윈은 다시 한 번 심각한 실수를 한 것이다. 그 현무암 절벽 위에 깔려있는 자갈들과 바위들은 그 계곡 깊이보다 많은 홍수가 있었을 때 그 절벽 위까지 넘치는 물에 의해 빠르게 퇴적 된 것들이다. 그러므로 거대한 홍수는 폭 6마일의 계곡을 가득 메운 120 m 깊이 이상의 물이었을 것이다!

믿을 수 없는 방법

그 강 계곡에 대한 다윈의 해석이 왜 그렇게 잘못 되었을까?

첫째, 그가 캠프 장소에 오기도 전에 그는 무엇을 보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의 과학적인 판단은 선입견들로 얼룩져 있었다.

둘째, 다윈은 산타크루즈 강 계곡을 여행하기 전에 잘못 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비글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할 동안 찰스 라이엘(Lyell)의 “지질학 원리(1830년)”라는 책을 읽고 있었다. 그 책은 다윈에게 가장 큰 바위들은 해빙되고 있는 빙산에서 퇴적된다는 생각을 제공했다.

셋째, 다윈은 세상을 설명하는데 한심한 방법 한 가지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현재 계곡의 구조를 보고 장구한 지질시대 동안에 현재처럼 느린 활동이 계속된 결과로 그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이해했다. 후에 다윈은 이런 믿을 수 없는 방법을 갈라파고스의 핀치 새 부리에도 적용하여 지질시대를 지나면서 한 공통의 선조 새에서 자연선택이란 과정이 누적되어 다양한 핀치 부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데도 사용했다.

다윈의 산타크루즈 강 계곡에 대한 설명은 실수였다. 만약 젊은 다윈이 그 계곡에서 거대한 홍수 증거들을 제대로 해석했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후에 그가 생물학적 진화라 불리는 추론을 받아 드렸을까? 다윈은 생물학적인 진화론자가 되기 전에 지질학적인 진화론 신봉자가 되었음에 틀림 없다. 다윈의 캠프지는 젊은 자연주의자가 과학적으로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만든 첫 번째 장소였다.

Steven A. Austin, Ph. D. / 진화론적 석탄형성의 문제점을 홍수모델로 해결한 창조과학자,
geological consultant for the National Creation Science Foundation,

출처: Austin, S. A. 2009, Darwin's First Wrong Turn, Acts & Facts, 38 (2): 26.

6차 유학생 탐사여행 참가자 간증문-2

(12/29 ~12/31, 2008)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속은 마음으로 여행한다는 생각으로 온 유학생 탐사 여행인데 뜻밖에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에 후원해주신 온누리교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증거를 알려주는 좋은 여행이 계속 지속되어서 저같이 어린 신앙을 가진 유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유중근, Utah Valley University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신 이재만 선교사님과 창조과학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도움주신 온누리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믿음이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하루 빨리 창조과학이 온 땅에 널리 퍼져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반호정, University of Utah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입식 교육으로 진화론을 믿고 있었는데, 유학생 탐사여행을 통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쓰임 받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식 세끼 밥 먹여준 온누리교회 감사합니다. - 이형대, Indiana University, 전산학

기대 이상으로 채워진 2박 3일이었습니다. 믿음이 먼저인가, fact가 먼저인가의 고민에서, 내게 사실을 동반한 믿음이 있음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실 어딘가에 떠나거나 참석하는 것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재정인데, 온누리교회를 통해 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 백유선, University of Illinois, 사회사업

기대하지 않은 마음으로 참석하고 과연 창조과학이 과학일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유학생 탐사 여행에 참여하면서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증거들은 창조 모델을 지지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되는 여행이었습니다. 저희를 지원해주신 온누리교회에 감사 드립니다. - 김동호, University of Illinois, 전자공학

모태신앙으로 20년간 살아오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고, 불신자들과 기독교에 대한 논쟁을 할 때 마땅한 증거없이 단지 체험신앙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유학생 탐사여행에서 배운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천지창조에 대한 증거였고, 나의 믿음에 기둥을 하나 더해 주었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화론을 반박하기 위해, 창조론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창조과학자님들과, 청년들에게 비전을 볼 수 있게 도와준 온누리교회에 감사를 표합니다. - 박희수, BYU

저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너무도 혼란스럽고 슬프니다. 제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거의 모든, 아니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 여행은 제게 너무도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호기심을 넘어서 “믿음”이라는 아주 작은 씨앗이 생긴 느낌입니다. 아직 모릅니다. 진심으로 알고 싶고 확신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에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 최상오, *Utah Valley University*

이번 유학생 탐사여행 전에는 성경에 대해 막연히 알고 있었고, 솔직히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행을 통해서 여태까지 배웠던 진화론이 허구였고, 거짓이었던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고 창조론에 대한 진실을 조금은 알 것 같은 느낌을 갖고 갑니다. 이번 기회를 주신 온누리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권희창, *University of Uta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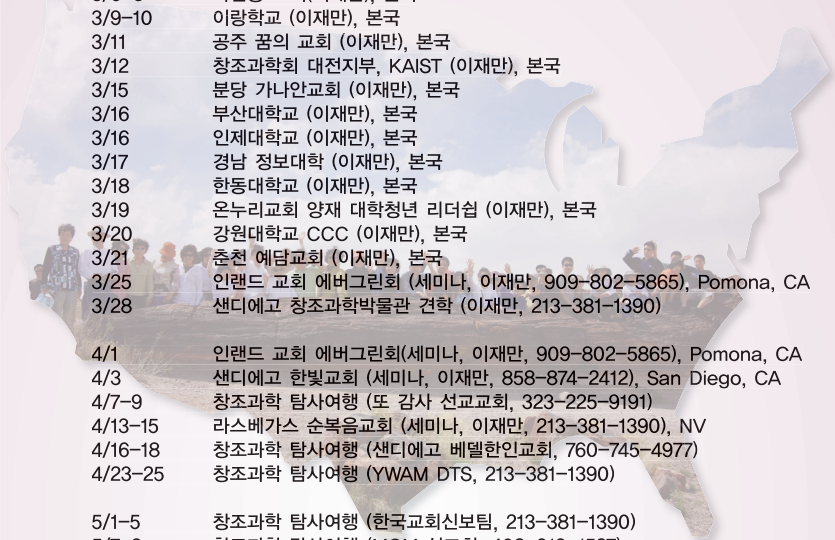
이전에 책으로 읽고 깨달았던 창조과학보다 직접 와서 체험하고 강연을 듣고 깨달은 것이 훨씬 감동도 되고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갖게 해준 온누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이학선, *Purdue University, Electrical Engineering*

유학생 탐사여행을 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랜드캐년에 간다고 자랑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이제 7개월 후면 목회를 하게 될 사람으로서 이번 기회는 성지순례와도 같은 기회였습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는 기회가 되었고 제 믿음을 더 굳게 세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유지선

전 누구보다도 Box보다 Boat를 타는데 익숙했고 그것을 믿어왔던 한 학생이었습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축복에 감사하면서도, 제가 힘들게 노력했던 것들이 일조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때로는 제 자신이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학생 탐사여행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 계획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항상 그의 사랑과 임재 안에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분께서는 항상 계셨습니다. 방주 안에서, 또 저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끄시는 대로, 힘주시는 데까지 더 전진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에 감사 드립니다. - 김진지, *하버드 대학, 경제학*

저는 목회자의 장남으로서 보수신앙을 배웠고 익혀 왔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믿어 왔고 또 더 나아가 어떠한 세상적 이데올로기에 미혹되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유학생 탐사여행을 통해 내가 새빨간 거짓에 속아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나니 회개를 하게 되었고 내 믿음이 한 번 더 나아지고 굳세어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가르침이 내 믿음을 굳세게 하리라는 믿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도움을 주신 온누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김진실, *Westminster College, Christian Education*

2009년 ACT Schedule

- 
- 3/1 생수의 강 선교교회 새신자반 (이재만, 562-653-0168), Cerritos, CA
 - 3/2-6/15 베네디크타대학교 강의 (최우성, 714-517-1945) Anaheim, CA
 - 3/5 온누리교회 서빙고 대학청년 리더십 (이재만), 본국
 - 3/6-8 독산동 교회(이재만), 본국
 - 3/9-10 이랑학교 (이재만), 본국
 - 3/11 공주 꿈의 교회 (이재만), 본국
 - 3/12 창조과학회 대전지부, KAIST (이재만), 본국
 - 3/15 분당 가나안교회 (이재만), 본국
 - 3/16 부산대학교 (이재만), 본국
 - 3/16 인제대학교 (이재만), 본국
 - 3/17 경남 정보대학 (이재만), 본국
 - 3/18 한동대학교 (이재만), 본국
 - 3/19 온누리교회 양재 대학청년 리더십 (이재만), 본국
 - 3/20 강원대학교 CCC (이재만), 본국
 - 3/21 춘천 예담교회 (이재만), 본국
 - 3/25 인랜드 교회 에버그린회 (세미나, 이재만, 909-802-5865), Pomona, CA
 - 3/28 샌디에고 창조과학박물관 견학 (이재만, 213-381-1390)

 - 4/1 인랜드 교회 에버그린회(세미나, 이재만, 909-802-5865), Pomona, CA
 - 4/3 샌디에고 한빛교회 (세미나, 이재만, 858-874-2412), San Diego, CA
 - 4/7-9 창조과학 탐사여행 (또 감사 선교교회, 323-225-9191)
 - 4/13-15 라스베이거스 순복음교회 (세미나, 이재만, 213-381-1390), NV
 - 4/16-18 창조과학 탐사여행 (샌디에고 베델한인교회, 760-745-4977)
 - 4/23-25 창조과학 탐사여행 (YWAM DTS, 213-381-1390)

 - 5/1-5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교회신보팀, 213-381-1390)
 - 5/7-9 창조과학 탐사여행 (MOM 선교회, 408-313-1527)
 - 5/11-13 창조과학 탐사여행 (얼바인 온누리교회, 949-261-9100)
 - 5/23-25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213-446-2821)
 - 5/29-31 신시네티 능력침례교회 (세미나, 이재만, 513-382-1421), OH

 - 6/4-6 빙하시대 탐사여행 (모집, 213-381-1390)
 - 6/8-11 창조과학 탐사여행 (시애틀 형제교회, 213-381-1390)
 - 6/7 - 8/9 창조과학학교 (매 주일 오후), LA 온누리교회, CA
 - 6/14 생수의 강 선교교회 새신자반 (이재만, 562-653-0168), Cerritos, CA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